

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4. 3.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

목 차

1. 인도, 브라질 "급진적 입장"으로 WTO 회담 진전 차단 혐의..... 3
2. 美 NOAA, 2025년 예산으로 약 11억 달러 요청..... 4
3. NOAA와 NASA, 대서양 참고래 보존을 위해 협력..... 5
4. WTO 수산보조금 협상 난항, 차선택은 복수국간 협정..... 7

- 남획과 함대의 과잉생산과 관련된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함.
- 특히 인도 및 브라질 같은 몇몇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태롭게 하는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유럽의 전무이사, WTO협상에 대한 인도의 역사적인 방해와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중요한 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강조함.
 - 인도는 현재, 원양어업 보조금에 대한 25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음.
 - 본 움직임은 EU 및 중국같은 주요 어업 강국에 의해 만들어진 지불이 보조금으로 고려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개발도상국과 해양 NGO로부터 지지를 받음.
 - 그러나, 전무이사는 국제 무역 규칙의 준수와 책임있는 어업관리의 증진을 강조하면서, EU의 지속가능한 어업동반자 협정(SFPAs)를 옹호함.

※ 출처: SeafoodSource¹⁾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india-brazil-accused-of-blocking-progress-at-eu-talks-with-radical-positions> ('24년 03월 28일 검색)

-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의회에게 2025년 운영, 연구 및 시설 유지를 위하여 약 11억 달러를 요청하였음
- 2025년 예산은 2023년 의회가 할당한 13억 달러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2024년 회계 연도에 의회가 동의한 예산과 거의 동일함
 - NOAA의 2025년 가장 주요한 목표는 콜롬비아강 유역의 Mitchell법의 부화장을 발전 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대하는 것임
 -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콜롬비아강 유역의 재건 사업을 우선시 하는 각서(memorandum)를 작성하며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바이든 행정부가 콜롬비아 강 유역의 야생 연어, 스틸헤드 및 기타 토종 어류 개체수를 재생시킬 것을 우선순위로 설정한 것에 따라 NOAA는 이 부분의 예산을 7500만 달러로 증액하는 것이 목표임
 - 대기청에 따르면 현재 36개의 배양 프로그램이 자금을 확보한 상태이나 추가 자금이 지원되면 60개까지 확대하여 연간 약 25만 마리의 연어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NOAA는 또한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해양 풍력 에너지 30기가와트를 배치하는 것이 목표임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적 조사, 기술검토, 보호종 환경 검토 및 에너지 개발 주변의 어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자금 2,500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음
 - 어업분야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America the Beautiful Initiative' 정책의 일환으로 해양 보호 구역을 수립하고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관련 예산에서 총 8700만 달러로 높일 것으로 예상됨

※ 출처: SeafoodSource²⁾

²⁾<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noaa-fisheries-releases-2025-budget-request> (2024년 3월 29일 검색)



대서양 참고래와 그 새끼

(출처: Clearwater Marine Aquarium Research Institute)

- 3월 4일에 NOAA 수산국은 NASA 혁신 최고 센터(CoECI)와 멸종위기에 처한 대서양 참고래 확인 기술 개발을 위해 50만불을 사용하는 합의를 발표하였음. 이 투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Invest in America” 아젠다 이행의 일부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후투자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펀딩되는 것임.
- 북대서양 참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해있는바, 약 360개체가 남아 있고, 이중 산란자원인 암컷은 70개체 미만임. 이 종에 대한 주요 위협은 어구에 얽히는 것과 선박과 충돌하는 것임. 기후변화는 이 종의 생존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펀딩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이 종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감시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Janet Coit NOAA 수산국 부국장은 말했음. “NOAA 수산국은 주요 사회문제들에 새로운 기술과 접근들을 적용해 온 경험이 많은 NASA와 협력하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 이 합의서에 따라, 또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하에, NOAA 수산국은 대서

양 참고래 생존에 주요 위협 중 하나인 선박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위성 태그 기술을 개발하여 고래 추적 개선을 모색하게 될 것임. 이 기술로 NOAA 수산국은 바다의 이용자들이 고래가 어디에 있고 고래 발견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NASA 혁신 최고 센터는 오픈 혁신 및 크라우드 소싱의 사용을 교육하고 촉진하기 위해 NASA 내 다른 부서들 및 다른 연방기관들과 일하고 있다"고 휴스턴에 있는 NASA 존슨 우주센터 CoECI 프로그램 매니저 Steve Rader는 말했음. "오픈 혁신은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술개발 및 과학적 발견의 진보를 위한 독특한 도구를 제공하고, 우리는 이 중요한 생태학적 노력에 관해 NOAA 수산국과 협력하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 NOAA 수산국과 그 파트너들은 대서양 참고래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새로운 합의서는 NOAA 수산국이 최근 발표된 '대서양 참고래와 연안 풍력 전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도울 것이고, 이 종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회복 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NOAA 수산국의 포괄적인 계획인 '북대서양 참고래 회복으로 가는 길'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NOAA 수산국은 이전에 유령 어구를 추적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NASA와 협업하였음. 이번 프로젝트로 두 기관의 파트너십은 더욱 강화될 것임.
- 이 합의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부터 8200만불의 펀딩 지원을 받아 2023년 9월에 처음 발표된 북대서양 참고래 회복을 위한 NOAA 수산국 계획의 일부임. 이 투자들은 미국 공동체들과 업계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33억불의 일부임.

출처: www.fisheries.noaa.gov³⁾

3) <https://www.fisheries.noaa.gov/media-release/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new-noaa-nasa-agreement-advance-north-atlantic>
(3월 4일 기사)

※ 아래 기사는 Christine McDaniel이 Forbes에 기고한 글('WTO Fisheries Stall, Plurilateral Deal Is Next Best Option')을 번역한 것임.



WTO 사무총장 Ngozi Okonjo-Iweala 박사

(사진 출처: Sydney Morning Herald)

- WTO 사무총장 Ngozi Okonjo-Iweala 박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2024년 각료회의에서 WTO는 추가적인 수산보조금 협상을 타결하는 데 실패하였음. 그러나, 긍정적인 점은,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다수 있는 점임. 하나의 복수국간 협정이 WTO 지도부가 원하는 다자협상에 대한 가교가 될 수 있음. 최근 연구들은 수산보조금 협상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복수국간 협정을 제안하고 있음.
- 현재 90%가 넘는 세계 어족자원이 초과어획 상태에 있음.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WTO 협상가들은 수산보조금의 영향을 제한하는 것에 충분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음. 지난달 말, 70개 WTO 회원국만이 공식적으로 수산보조금 협정을 수락한 상태임. 협정 발효 요건은 회원국 2/3으로, 회원국이 현재 166개이므로 110 또는 111이 필요한 수임. 이 수를 충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들 70개(이상) 국가들은 복수국간 협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보조금은 거대한 선박들과 어구들을 지원하게 됨. 거대한 선박들은 공해로 나아가 거대한 어구를 바다에 던짐. 고도의 파괴적인 어구인 트롤 어구는 목표어획물을 건져 올리지만, 많은 부수어획 또한 일으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함.
- 미국 지질조사소는 연안 및 해양 재난 및 자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 이 프로그램의 분석가들은 저층 트롤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인식해 왔음. 2016년도 논문 “저층 트롤 어업의 세계적 영향”에서, 지질학자들은 트롤 어업이 해저를 반복적으로 긁음으로써 어떻게 자연적 해저 서식지를 파괴하는지를 설명하였음. “농부는 폭우로 표층토가 씻겨 내려가고 있는데 자신의 땅을 계속해서 갈지 않을 것이다”고 해양지질학자 Ferdinand Oberle는 말했음.
- 경제사업 리서치센터(CEBR)에서는 국제협력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활동과 자원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이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정보 공유, 감시 및 제재와 관련한 부분적인 협력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
- 복수국간 협정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 내 3가지 발견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첫째, 국가들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 어업을 40% 감소시킬 수 있음. (일부 국가만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국가들은 하지 않는) 부분적 정보 공유를 통해서도 불법 어업을 30% 감소시킬 수 있음. 역동적인 효과가 여기서 나타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 공유는 나쁜 행위자들의 가시성이 높아지고, 집행 메커니즘들이 작동하면 IUU 어업 활동의 수익성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음.
 - 둘째, 연구자들은 정보 공유를 통해 자원상태가 개선됨을 발견하였음. 식물, 어류, 해양생명체들의 총중량인 해양 생물량은 완전한 정보 공유를 할 경우 55% 높아지고, 부분적 정보 공유를 할 경우 43% 높아짐. 총생물량의 증가는 정직한 어민들과 이들에 의존하고 있는 연안 공동체들의 수익성을 높이고, 연안국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노력-어획 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음.

- 제재금을 포함한, 나쁜 행위자들에 대한 감시 메커니즘들이 필수적임. 제재금이 높을수록 IUU 어업에 대한 유인이 감소함. 일부 참여자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엄격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음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확인되었음.
- 국제 지속가능한 개발 연구소에서 발간한 “무역협상가들을 위한 지속가능성 도구상자”에 나오는 것처럼, WTO 설립문서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는 환경 조치들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들이 있음. 환경 규제를 위한 정책적 공간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 제20조(b) 및 (g), 그리고 정부조달에 관한 복수국간 협정 제23조에 제공되어 있음.
- 충분한 수의 국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 메커니즘들을 이행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IUU 어업의 수익성과 만연함은 감소할 것임.
- 아부다비 회의 결과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IUU 어업의 경우,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똑같은 규칙과 조항들에 합의해야만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님. 해로운 수산보조금을 근절하기로 이미 합의한 WTO 회원국들은 복수국간 협정을 추구하여 세계 어족 자원상태가 보다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출처: www.forbes.com⁴⁾

4) <https://www.forbes.com/sites/christinemcdaniel/2024/03/18/wto-fisheries-stall-plurilateral-deal-is-next-best-option/?sh=46d509a44774>
(3월 18일 기사)